

2021 King Sejong Institute Tübingen Seollal-Schreibwettbewerb Gewinner

튀빙겐 설날 쓰기대회(,나의 설날') 수상자 및 수상작

1. Platz: Eva Lia Schneider

누군가 저에게 2020년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해 묻는다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보냈던 가슴 벅찬 시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세계를 휩쓸기 전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한국인 가족들과 보낼 수 있었던 경험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에는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은 신정이고, 달력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1월 1일을 구정 또는 설날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원리로 한국의 설날은 해마다 날짜가 다른데, 저는 가장 큰 명절의 날짜가 매년 바뀐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설날에 한국인 친구의 가족들로부터 복을 기원하는 복조리도 선물 받고, 조선시대 왕이 살았던 경복궁에 가서 예쁜 한복도 입어 보고, 윷놀이와 조선시대 설 명절에 왕이 신하에게 하사했다는 세화 그리기, 방패연 만들기, 새해의 희망과 다짐을 한글 서예로 표현하는 신년 휘호 등 전통놀이를 해보았는데 대가족문화가 발달한 한국의 협동하는 정서와 알맞게 대부분의 전통놀이는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닌, 삼삼오오 모여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 경제가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면함도 있지만, 설날과 같은 명절에 모여서 협동하고 하나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설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만든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는데 멥쌀로 만든 흰 떡으로 만든 떡국은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깨끗한 것이라는 뜻으로 새해 아침에 먹는 음식으로 한국에서 먹어 본 음식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제대로 한 살 더 먹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때 한 그릇 더 먹고 싶었지만 두 살 먹게 될까 봐 꼭 참고 한 그릇만 먹었던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에 어른들께 예를 갖추 인사를 드리면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도 세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친구의 부모님께 절을 한 뒤 세뱃돈을 받았는데, 그 당시 너무 신기해서 지금까지도 그 돈을 쓰지 않고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소개할 때 마다 지갑 속 돈을 보여주며 세배 문화를 설명하곤 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어 아쉽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오면 한국을 꼭 다시 방문하여 가족들과 모여 즐거운 설 명절을 다시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2. Platz: Jennifer Lisson

2020년에 나는 나의 첫 번째 설날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행운이었다.

201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서
정치와 음식을 많이 경험해보고 문화 체험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인 가족과 홈스테이를 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떠나기 전에 한국의 중요한 명절인 설날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20년 1월 24일에 나의 홈스테이 가족은 모두 특별한 날을 준비하느라 매우 바빴다.

홈스테이 가족에는 아버지, 어머니, 7살 남자아이 그리고 5살 여자아이가 있었다.

우선 우리는 집을 청소했다. 그 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부산에
그 가족의 할머니가 살고 계시어서 저녁에 내려가는 것이 계획했다.

한국에서는 설날이나 명절 때 가족들은 보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흔하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도 이미 고향으로 출발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생들이 많았던 우리 동네에서 평소 자꾸 들리는 웃음소리를
못 들었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아예 없었다.

1월 25일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줌마와 할머니를 도와서 떡국을 만들었다.

떡국은 설날 때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면서 지체롭게 해준다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몇 그릇씩 먹으라고 말하지만 어른들에게
한 그릇 이상으로 권유를 하지 않는다 (너 나이가 들면 안 되니까).

식사한 후에 우리는 차례를 지냈다. 내가 홈스테이하는 남동생하고 여동생의
한복 입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어른들은 차례상에 반찬과 다양한 과일을
올려놓기 시작했다. 절하는 이유는 조상님들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 시간이었다. 세배라는 것은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할머니께 절을 하면서 건강한 새해를
보내시라고 말씀드렸다. 절을 하고 나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돈이 담겨있는
봉투를 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한다.

나는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세배하고 약과를 먹어서 행복했다.
비록 내가 한복을 못 입어서 아쉬웠지만, 설날이라는 중요한 명절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내년에 다시 코로나에 대한 문제 없이 한국을 여행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때는 아아 한복을 입고 설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Platz: Ludovica Mancini

저는 지금까지 설날을 한 번 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세종학당의 2020 년 신년 파티였어요. 저는 그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파티는 아직 락다운이 없을 때 2 월에 열렸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어서 나는 한국어 수업의 친구들과 그곳에 갔어요. 시도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았어요: 먼저 한국 스낵하고 음료수를 먹어봤는데 그 중 몇 개 처음으로 먹었어요. 특히 저는 "밀키스"음료를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에는 맛이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먹어 본 후에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복을 입어 봤어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이라서 옷을 입는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 선생님 앞에서 세배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단계를 기억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한국 게임들을 했고 그 중 하나는 윷놀이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전진할 수 있는 발을 몰랐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어요. 숫자는 즉시 읽을 수 있으니까 주사위로 놀기가 더 쉬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멋진 워크샵을 다시 개최하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끝기를 원해요.